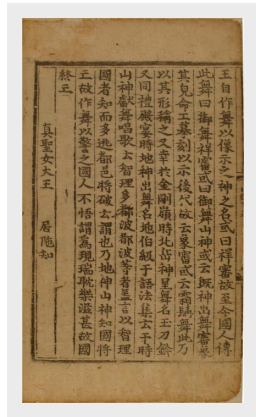


진성여왕[眞聖女王]

무너져가는 신라의 마지막 여왕

미상 ~ 897년(진성왕 11)



1 개요

진성여왕(眞聖女王)은 신라의 제51대(재위: 887~897) 왕이다. 경문왕(景文王)의 딸이며, 신라의 역사에서는 선덕여왕(善德女王)·진덕여왕(眞德女王)을 이어 3번째 여왕이 된다. 즉위 초 전왕(前王)들의 정책을 계승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든든한 정치적 후원자였던 숙부 위홍(魏弘)이 사망하고, 이후 정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889년(진성왕 3)에는 신라 체제 붕괴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농민 반란이 발생하였다. 이후 헌강왕(憲康王)의 서자 요(饒)를 태자로 삼아 왕위를 물려주었다.

2 진성여왕의 왕위계승

진성여왕의 성은 김(金)이며 이름은 만(曼)이다. [관련사료](#) 『삼국유사』에는 이름을 만헌(曼憲)이라고 전하며, [관련사료](#) 최치원의 『고운집(孤雲集)』, 『사사위표(謝嗣位表)』에는 탄(坦)으로 기록되어 있다. [관련사료](#) 제48대 경문왕(景文王)과 제47대 헌안왕의 딸인 문의왕후(文懿王后)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제49대 헌강왕과 제50대 정강왕의 여동생이다. 진성여왕은 아버지 경문왕과 오빠인 헌강왕·정강왕을 이어 왕위에 올랐다. 여자로서 왕위에 오른 것은 신라사(新羅史)에서 선덕여왕·진덕여왕에 이어 3번째이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진성여왕의 왕위계승에 대해서는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에 그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관련사료](#) 기록에 따르면 정강왕은 왕위를 이을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병에 걸리자 여동생인 진성여왕의 성품이 명민하고 골격이 장부와 같기에 왕에 걸맞고, 또 과거 선덕여왕·진덕여왕이 왕위에 올랐던 사례도 있음을 들어 진성여왕을 왕위계승자로 지목하였다. 이처럼 진성여왕은 전왕(前王)인 정강왕의 유조를 통해 왕위에 올랐다.

진성여왕은 전왕의 유조를 통해 왕위에 올랐으나, '여왕'의 즉위는 사실 특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진성여왕의 아버지인 경문왕의 경우 헌안왕의 사위로서 헌안왕의 유조를 통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때 헌안왕의 유조의 내용은 정강왕의 유조와 사뭇 다르다. 헌안왕은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없자 두 명의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의 경우는 암탉이 새벽을 알리는 일과 같아 본받을 수 없다"라고 하며 왕위를 사위인 경문왕에게 물려 주었다. [관련사료](#)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의 사례가 정강왕의 유조에서는 여왕 즉위의 근거가 된 것에 반해, 그 이전인 헌안왕의 유조에서는 부정적인 사례로 거론되었던 것이다.

이는 헌안왕 시대의 여왕 즉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정강왕 시대 이르러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경문왕 즉위 이후 시행된 왕권 강화 정책과 문한(文翰)·근시(近侍) 기구의

확장을 통한 정치 개혁들이 헌강왕을 거쳐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흥덕왕 사후 진행된 왕위계승 쟁탈전으로 흔들렸던 왕권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3 진성여왕의 정치 운영과 위홍(魏弘)

진성여왕은 즉위 이후 아버지 경문왕과 오빠인 헌강왕·정강왕의 정책을 계승하고자 하였다. 이때 진성여왕을 보좌한 인물이 바로 경문왕의 동생이자 진성여왕의 숙부였던 위홍이었다. 위홍은 경문왕이 왕위에 오르자 형인 경문왕을 도와 중앙정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위홍은 이찬(伊瀾=伊干)의 관등을 지니고 상재상(上宰相)과 병부령(兵部令)의 관직을 겸직하며 [관련사료](#) 경문왕 다음가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경문왕이 사망하자 위홍은 헌강왕의 즉위와 함께 신라 최고 관직인 상대등(上大等)이 되었다. [관련사료](#) 이처럼 신라 최고위직을 역임하고 있던 위홍은 진성여왕 즉위 이후에도 이전처럼 왕을 보좌하며 정국을 운영하였다.

진성여왕은 황룡사에 백고좌(百高座)를 설치하고 설법을 듣기도 하였는데, 이는 헌강왕과 [관련사료](#) [관련사료](#) 정강왕의 정책을 [관련사료](#) 계승한 것으로 불교를 통해 민심을 수습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진성여왕은 위홍에게 명하여 대구화상(大矩和尚)과 함께 향가를 수집하여 『삼대목(三代目)』을 편찬하게 하였다. [관련사료](#) 대구화상은 『삼대목』 편찬 이전 경문왕 시기에 화랑과 관련하여 왕에게 향가를 지어 바친 적이 있었다. [관련사료](#) 『삼대목』은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고 불교와 화랑을 통해 진성여왕의 왕위계승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으로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진성여왕은 즉위 후 여러 주군에 대해 1년 간 조세를 면제해 주기도 하였으며, 죄인들을 크게 사면하기도 하였다. [관련사료](#) 죄인들을 사면하는 것은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빈번히 이루어진 조치였으나, 왕이 즉위 직후에 조세를 면제해 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진성여왕이 즉위 후 여러 주군에 대해 조세 면제 조치를 단행한 것은 지방민들의 민심을 수습하고 가뭄과 흉년으로 인한 백성들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조세 면제 조치의 목적을 여왕 즉위로 인해 떨어진 왕위의 정당성 확보와 정국 안정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4 농민 반란과 신라의 몰락

888년(진성왕 2) 진성여왕을 보좌하며 정국을 운영하던 위홍이 사망하였다. 위홍이 사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의 정치를 비판하는 ‘왕거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왕거인 사건은 『삼국사기』와 [관련사료](#) [관련사료](#) 『삼국유사』에 [관련사료](#) [관련사료](#)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위홍이 죽자 진성여왕은 젊은 미남자 2, 3명과 함께 음란한 짓을 하고 그들에게 중요한 관직을 맡게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아첨하는 이가 총애를 받고, 뇌물이 공공연하게 행해졌으며 상과 벌이 공정하지 못하여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느슨해졌다고 한다. 『삼국유사』에는 진성여왕이 왕이 된 지 몇 년 만에 유모인 부호부인과 그의 남편 위홍 등 서너 명의 총신(寵臣)들이 권력을 마음대로 하여 정사가 어지러워졌고, 이에 도적이 별떼처럼 일어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왕거인 사건의 발생 시기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공통된 내용은 위홍 사망 이후 진성여왕의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당시의 정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889년(진성왕 3)에 전국적인 농민 반란이 발생하였다. [관련사료](#) 이때 발생한 농민 반란은 신라 체제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해된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889년(진성왕 3) 여러 주군에서 공물과 부세를 보내지 않아 나라의 재정이 궁핍해졌다. 이에 진성여왕이 사신을 보내 공물과 부세를 수취하려고 하자 도리어 곳곳에서 도적들이 봉기하였다고 한다. 「오대산사길상탑사」에는 기유년[己酉年(889년, 진성왕 3)]에 시작된 농민 반란이 을묘년(乙卯年; 895년; 진성왕 9)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관련사료](#) 신라 정부는 농민 반란을 제압하지 못하였고, 반란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889년(진성왕 3) 사벌주에서는 원종(元宗)과 애노(哀奴)가 반란을 일으켰다. 진성여왕이 나마(奈麻) 영기(令奇)에게 명하여 반란을 진압하게 하였으나, 영기는 반란군이 두려워 나아가지 못하였다고 한다. [관련사료](#) 891년(진성왕 5)에는 북원(北原)의 양길(梁吉)이 궁예에게 명하여 북원 동쪽 마을들과 명주(溟州)의 주천(酒泉) 등 10여 개의 군현을 습격하였으며, [관련사료](#) 892년(진성왕 6)에는 견훤이 완산주(完山州)를 근거로 하여 후백제(後百濟)를 자처하며 무주(武州) 동남쪽의 군현을 차지하였다. [관련사료](#) 896년(진성왕 10)에는 스스로 바지를 붉게 물들인 적고적(赤袴賊)이

발생하여, 신라의 수도인 경주 서부 지역의 모량리(牟梁里)까지 와서 민가를 노략질하였다고 한다. [관련사료](#)

5 진성여왕의 선양(禪讓)과 태자 요(曉)

몰락해가는 신라를 앞에 두고 진성여왕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894년(진성왕 8) 최치원이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여조(時務十餘條)를 올렸다. 이에 진성여왕은 최치원의 시무책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를 아찬(阿飡)으로 삼았다. [관련사료](#) 시무책은 당시의 시정 개혁안이었던 듯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당시의 시대 상황과 최치원의 사상을 고려해 볼 때, 시무책의 내용은 진골 중심의 골품제 타파·왕권 강화책·호족 억압책·인사행정 개혁안·조세제도 개혁안 등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신라에서 실제로 이러한 시무책이 시행되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전하지 않기에 알기 어렵다. 현재 학계에서는 시무책 중 일부 내용이 현실화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와 시무책이 진골 귀족의 반발로 신라 사회에서 수용되지 못하고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모두 제기되었다.

895년(진성왕 9) 진성여왕은 헌강왕의 서자(庶子)인 요(曉)를 태자로 삼았다. 요는 헌강왕의 아들로써 헌강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져 야합을 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얻은 아들이었다. 이후 진성여왕이 요를 만났을 때, 진성여왕은 요의 등 뒤에 두 뼈가 솟아 있는 것을 보고 헌강왕의 아들임을 알아보았다고 한다. [관련사료](#)

897년(진성왕 11) 태자 요가 15살이 되자, 진성여왕은 “근년 이래 백성이 곤궁하고 도적이 별때처럼 일어나니, 이는 나의 부덕한 탓이다. 어진 이에게 왕위를 넘겨주기로 나의 뜻은 결정되었다”라고 하며 실정(失政)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요에게 왕위를 넘겨주었다. 왕위계승은 선양(禪讓)을 통해 이루어졌다. 선양은 유가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왕위 양위 방식으로 덕이 있는 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같은 해 겨울 12월 4일(乙巳)에 진성여왕은 북궁(北宮)에서 사망하였다. 『삼국사기』에는 황산(黃山)에 장사를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관련사료](#) 『삼국유사』에서는 화장하여 뱃가루를 모량(牟梁)의 서악(西岳)이나 미황산(未黃山)에 뿌렸다고 전한다. [관련사료](#)